

Qimonda, 미국 D램 공장 폐쇄

독일 포함한 다른 거점은 당분간 가동 ... 투자자 없으면 철수

파산한 독일의 반도체 생산기업 Qimonda는 15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의 리치먼드 소재 공장을 폐쇄한다고 1월3일 발표했다.

Qimonda는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9.8%로 5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월23일 경영구조 악화로 파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독일 등 다른 공장들은 당분간 가동하고 미국 공장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Qimonda는 독일을 포함한 세계 거점에 총 1만2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Qimonda 관계자는 “사업자금을 지원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권터 페어호이겐 EU(유럽연합) 기업·산업담당 집행위원은 EU가 Qimonda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페어호이겐 집행위원은 “소유주가 살리기 원하지 않는 기업은 누구도 구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Qimonda의 지분 77.5%를 보유한 모회사 Infineon Technology를 겨냥한 것으로 Qimonda는 Infineon과 작센 주정부, 포르투갈 은행 등의 구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월23일 파산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04>